

상업적 가치와 산업주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 연극 재편과 정체성*

박 정 만

차 례

- I. 들어가며
- II. 남북전쟁과 미국 연극
- III. 미국 연극의 산업화 기반
- IV. 자생적 연극 관행과 미국 연극의 정체성

I. 들어가며

유럽, 특히 모국인 영국과 비교할 때, 미국 연극은 비교적 짧은 건국 역사에서 배태한 전통의 부재라는 태생적 한계를 떠안아야 했다. 유럽 연극을 관통하는 가장 두드러진 전통 중 하나로 ‘후원’(patronage) 문화를 들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극은 전적으로 국가 구성원 전체가 동참하는 국가행사의 일환이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했다.¹⁾ 중세 유럽에는 지배종교인 기독교의 권위와 교리 설교를 위한 종교극이 대표적인 연극 형태였는데 종교극 행사는 초창기에는 순수한 교회의 재정 지원으로, 이후 교회가 세속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일정 부분 길드 조직 등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행해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의외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일례로, 고대 시민국가 아테네에서 행해진 디오니시아 축전(City Dionysia)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적 종교축전이었고, 풍요의 신 디오시소스(Dionysus)를 기리는 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대행사로 연극경연대회가 펼쳐졌다. 고대 로마의 경우 루디 로마니(Ludi Romani)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가 축전이었고, 고대 그리스 신 제우스(Zeus)에 상응하는 로마 신 주피터(Jupiter)에게 헌정된 이 행사에서 기원후 250년경부터 국가 지원 하에 연극 행위가 행해졌다(Wilson and Goldfarb 30-33, 65-66).

졌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무역과 통상을 통해 새로운 권력계층으로 부상한 자본가들이 연극을 위시한 예술의 후원자로 부상했다.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Medici Family)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의 경우 정규 극단들(legitimate companies)은 예외 없이 왕실과 귀족의 재정지원과 후원 속에서 합법적으로 공연을 허가받았다. 일례로 엘리자베스 시대를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의 극단은 후원자의 이름을 딴 ‘챔벌레인의 극단’(Lord Chamberlain’s Men)으로 활동했다. 오늘날에도 세계적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Royal Shakespeare Company)은 상기한 영국의 연극 후원 문화 전통을 입증한다.

반면, 왕족과 귀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한 후원 문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 연극은 애초부터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해야 했다. 전통의 부재와 함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인프라인 후원 문화의 부재는, 미국 연극이 시작부터 모국인 영국에 대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강박적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한편, 전통의 부재는 미국 연극이 시작부터 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에서 보듯 유럽 연극은 태생적으로 구성원 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국가적 종교축제의 일환으로 거행되었으며, 다분히 지배 권력과 질서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사였다.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명맥을 이어온 유럽 각국의 국립·왕립 극단들은 연극과 제도권 권력 간의 유착관계 필요성과 당의성에 대한 상징일 수 있다.

반면 애초부터 ‘외부의 힘’에 빚진 게 없었기에, 미국 연극은 지배 권력과 질서에 적극 저항하고 정치적 사회운동체로 변모하여 현실에 참여하는 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 전쟁 직후인 1960년대 미국을 풍미한 ‘헤프닝’(happening)과 ‘아방가르드’(avant garde) 계열 극단의 활동이다. 리빙 씨어터(Living Theatre), 오픈 씨어터(Open Theatre), 퍼포먼스 그룹(Performance Group) 등을 포함한 이들 젊은 극단들은 혁신적이고 도발적인 무대 실험을 통해 당대 미국 사회에 팽배한 자본주의의 폐해, 그릇된 인습으로 변질된 과거 전통, 미국의 베트남 참전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연극이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서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정치체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1960년대 미국 아방가르드 연

극은 “새로운 대안 연극”(new alternative theatres)이라는 미국적 연극 전통을 수립하였던 것이다(Shank 1).

리처드 엘만(Richard Ellmann)과 찰스 피델슨(Charles Feidelson)은 전통의 부재가 필연적으로 “폐적과 해방”(disinheritance and liberation)이라는 “부정과 긍정의 두 얼굴”(two faces, negatives and positive)을 갖는다고 말한다(vi).²⁾ 미국 연극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의 부재에서 새로 시작되어야 할 미국 연극은 상실과 결여라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새로운 전통 수립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태어난 셈이다.

모국 영국을 버린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정착한 신세계,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 끝에 독립을 쟁취한 나라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전통의 부재는 미국 연극이 떠안고 감수해야 할 숙명이었을 것이다. 한편, 전통 부재라는 숙명은 향후 미국 연극이 수립할 새로운 전통이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연극 전통과 차별되는 형태로 전개될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상업적 가치’(mercantile value)는 미국 연극 전통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진 차별성이다. 외부의 후원 통로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 극단은 생계와 경비를 전적으로 흥행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유럽 연극계가 후원 문화의 수혜를 입으며 재정적 안정 속에서 공연의 예술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 연극계는 치열한 극단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일한 수입원인 흥행에 전념해야 했다. 관객 수가 극단의 수입과 직결되었기에 당연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공연의 예술적 수준이 아니라 공연의 관객동원 능력이었다.

일례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모더니즘을 필두로 사실주의와 비(반)사실주의 문예운동과 양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유럽 연극계를 풍미하며 예술성 실험의 향연을 일구어낸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연극계는 여전히 흥행과 관객몰이를 의식한 프로그램 구성과 공연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미국 연극계가 연극의 양식과 예술성 실험을 비로소 목도하게 된 것은 유진 오닐

2) 엘만과 피델슨은 19세기에 등장한 모더니즘의 도래에서 전통 상실의 ‘긍정과 부정의 두 얼굴’을 발견한다. 그들은 모더니즘을 기존 전통의 상실·부재에 입각한 새로운 전통이라 지적하면서 “비전통적 전통”(untraditional tradition)이라 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모더니즘은 “상속된 양식 또는 부패로부터 해방”(liberation from inherited patterns or depravation)이자 “폐적 혹은 상속권 박탈”(disinheritance)을 함의한다(vi).

(Eugene O'Neill, 1888-1953)이 전업 작가로 등장한 시점인 1910년경 이후다. 그를 ‘미국 드라마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역시 그가 미국 연극 무대에 선보인 예술양식 실험—사실주의 및 표현주의와 상징주의를 포함한 비사실주의 연극 실험을 포함하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당시까지 이러한 면모가 미국 연극계에 아직은 생소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미국 연극의 예술성 논의와 실험이 본격화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앞서 언급한 1960년대 해프닝과 아방가르드 연극 실험과 이어지는 197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 연극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된다. 즉, 태동기부터 미국 연극사를 관통해온 제일 전통은 바로 ‘상업적 가치’이며, 이는 산업으로서 연극 혹은 연극 산업주의라는 미국 연극의 독특한 정체성과 발전 방향의 잠재 가능성을 배태하면서 오늘날 세계 연극의 메카인 브로드웨이의 연극 환경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 연극 전통 수립과 정체성의 성격과 관련하여, 미국의 남북전쟁(Civil War, 1861-1865)은 당대까지 잔존했던 영국 전통의 양극을 청산하는 동시에 미국의 산업화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연극이 ‘산업으로서 연극’이라는 특유의 정체성을 실현함으로써 영국 연극과 차별되는 ‘상업적 가치’라는 태생적 전통을 가지화했던 것이다. 본 논문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자생적 연극 관행이 토착화되는 과정을 추이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상업적 가치라는 미국 연극의 태생적 전통으로 수립되고 있음을 밝힌다.

II. 남북전쟁과 미국 연극

남북전쟁은 통상 19세기 중반 흑인노예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남부와 북부 간의 충돌로 인식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국 남북갈등의 기원이 흑인노예제도라는 표면적 이슈를 거슬러 이전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남북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감성과 기반 속에서 성장했다. 북부는 애초부터 유럽 이민자들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들을

대거 산업현장에 끌어들이고 평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자 유입정책을 지향했다. 백인 이민자들은 기존의 흑인들과 혼용되어 인종 혼합의 시민사회를 형성하였고, 이는 남북전쟁 직전까지 지속되어졌다. 일례로, 친북부 반노예 제주의 리더인 16대 대통령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은 1861년 3월 취임연설에서 “모든 가정과 모든 이의 심금”(every hearth and heart-string)에서 싹트는 “화합이라는 신비로운 탯줄”(the mystic cords of the Union)이라는 표현으로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동등한 국민으로 통합하려는 북부의 정신을 강조했다(Woodworth xii). 반면, 남부는 초기부터 변화를 지양하는 보수적 사회였다. 흑인노예들의 노동력이 백인 플랜테이션 경제체제를 공고히 받쳐주었기에 새로운 종류의 노동력 추가가 필요 없었다. 임금과 복지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권리’를 지닌 자유민 백인 노동자들은 남부 경제권에 더더욱 불필요한 존재였다.

1808년 이후 흑인노예 수입이 연방헌법에 의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여전히 흑인노예 매매가 성행하여 북부 인도주의자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남부의 면화산업에서 흑인 노예는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원이기에, 노예제도 존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대통령이나 연방의회가 아니라 노예제도와 직접 연관된 남부의 주정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남부의 주장이었다. 노예제도가 계속 정치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1860년 북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 11개 주가 합중국 연방정부에서 탈퇴하고 자치정부를 세우겠다고 선언했고, 이로 인해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흑인노예는 면화재배 및 주식용·원료용 곡물 농사를 주력으로 하는 남부 경제에 필수적인 노동 자원이었다. 반면, 상공업에 기초한 산업화를 지향한 북부 경제는 흑인노예에 대한 노동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소한 경제적 이유에서라도 흑인노예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남부와는 달리, 북부는 이러한 남부의 태도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침예한 대립각을 세웠고 이는 남북전쟁의 발발로 가시화되기에 이른다. 요약하면, 남북전쟁의 화두인 흑인노예 제도의 존치 문제를 둘러싼 인본주의 논쟁 저변에는 남과 북의 상이한 경제구조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남북

전쟁은 근본적으로 북부 산업자본과 남부 농업자본 간의 충돌로 요약된다.

남과 북의 갈등구조를 형성하는 또 한 축이 발견되는데, 모국인 영국과의 관계에 대한 남부와 북부의 입장 차이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부에는 이미 혼합인종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미국적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구세계 유럽과 달리 귀족과 계급이라는 전통이 부재했기에, 혼합인종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성공과 출세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았고, 이러한 태생적 환경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라는 미국 특유의 전통이 태어날 수 있었다. 특히 이민자들의 집합소인 뉴욕은 혼합인종 시민사회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적 전통의 축소판으로서 상징성을 지닌다. 반면 남부는 초기부터 영국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건국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립전쟁(American Revolutionary War, 1775-1783)을 계기로 영국 식민지 미국에 거주하던 이들은 독립군의 편에 가담할지, 모국의 왕에 충실한 백성으로 남을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Jasanoff 23). 후자는 스스로를 여전히 모국의 백성이라 생각했으며, 영국 왕에게 충부리를 겨누는 것을 모국에 대한 충성의 맹서를 깨는 것으로 여겼다. 왕당파(Royalists)라 불리는 이들은 결국 영국군의 편에서 애국주의자(Patriots)라 불리는 독립군과 대치했다. 애국주의자들은 이들 왕당파를 “미국의 자유에 적대적인”(inimical to the liberties of America) 족속이라 비판했다(Smith 142). 독립군의 승리로 미국이 독립하게 되자, 왕당파의 15퍼센트가 영국 본토 혹은 북미 영국령으로 떠났지만, 다수의 왕당파는 여전히 남부에 잔존했다. 한편, 건국 이후 독립군 세력 내에 분열이 일면서 남부 중심의 민주당(Democrats)과 북부를 거점으로 한 공화당(Republicans)의 양당 체제 시대를 맞게 된다. 북부가 흑인노예제의 전면 철폐와 이들의 시민권 보장을 추진했던 반면, 남부 민주당은 흑인노예제의 유지 및 확장을 주장하며 맞섰다. 특히 남부 세력은 북부의 급진적 개혁에 대항하여 ‘보수주의’(conservatism)를 표방하며 “[영국적] 전통, 절제, 계급제, 중용으로 복귀”(a return to tradition, restraint, hierarchy, and moderation)를 요구했다(Allitt 65).

결국 남북전쟁은 흑인노예제 폐지 문제를 두고 벌인 남과 북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구세계 영국 전통과 신세계 미국 전통 간의 대결구도를 함의한다. 즉, 남북전쟁은 북부의 입장에서는 영국 전통과 식민 상황에 대한 저항운동, 남부의 입장에서는 영국 전통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남북전쟁은 이전 영국군과 독립군 사이에 전개된 독립전쟁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³⁾ 이후에도 영국의 영향력이 한 세기 가까이 미국 사회에 양극처럼 잔재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북부의 승리가 미국에 남은 영국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잠재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모두의 언급은 근거를 갖는다.

남북전쟁의 결과, 미국은 노예제로 상징되는, 근본적으로는 영국 전통의 잔재이기도 한 신분과 계급 청산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흑인노예 해방⁴⁾은 상공업 자본에 기초한 북부 도시로의 대규모 노동력 유입과 직결되었다. 특히 미국의 연극산업 측면에서 볼 때, 북부로 유입된 대규모 노동력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남북전쟁 이후 북부의 거점 도시인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연극 사업화라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 새로운 연극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북부로 유입된 대규모 노동력은 잠재 신규고객층 형성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극단 및 미국 연극계의 생계를 책임질 잠재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약하면, 남북전쟁은 미국 연극의 태생적 전통으로 출발한 산업적 가치 확립 및 재도약을 가능케 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3) 독립전쟁 기간 중인 1776년 6월 버니지나 주의 리처드 헨리 리(Richard Henry Lee)가 독립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3개 주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모인 제 2차 대륙회의(Continent Congress)에서 최종 승인 함으로써 영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선언 후 8년 뒤인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거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았다(Becker 3; *New York Times*, July 1, 1917).

4)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문에 서명한 데 이어, 1865년 12월 수정헌법 13조가 의회 채택되면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자유를 얻은 흑인들의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자유민 사무국’(Freemen’s Bureau)이 창설되었다. 1870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15조는 흑인에게 투표권과 시민권을 보장했고, 같은 해에 허람 로즈 레블스(Hiram Rhodes Revels, 1822-1901)가 미국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Wilmeth & Bigsby, “Timeline: Beginnings” 102-109).

Ⅲ. 미국 연극의 산업화 기반

남북전쟁이 북부 상공업 자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 궤도에 올랐다. 아울러 이 시기 산업화는 노동력 확충과 함께 당대의 획기적 기술 발전이 있어 가능했다.

우선, 당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대단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북전쟁을 계기로 자유민이 된 흑인들이 보다 나은 돈벌이와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며 도시로 대거 이주했다. 자유민 흑인과 더불어, 외국인 이민 세력 또한 도시 인구 증가에 크게 일조했다. 일례로, 1890년 시카고에 거주하는 외국 태생 이민자수가 십년 전 전체 거주민 수에 육박할 정도였다. 같은 시기 뉴욕에는 나폴리(Naples) 인구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이민자들, 함부르크(Hamburg) 인구에 해당하는 독일 이민자들, 더블린(Dublin) 인구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아일랜드 이민자들, 바르샤바(Warsaw) 인구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폴란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Wilson 182). 결과적으로, 미국 전체 인구는 남북전쟁 직후 3천 9백만에서 1900년 무렵 7천 6백만으로 급증했고, 뉴욕만 해도 1백 5십만에서 3백 5십만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다(Londré and Watermeier 170).

인구 증가는 연극계 입장에서 볼 때 잠재 고객 증가라는 의미에서 호재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도시 인구의 급증이라는 현실은 연극 산업의 최적지로서 뉴욕을 위시한 대도시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신규 잠재 고객들의 다양한 인종·국적·문화적 배경은 보다 다채로운 내용과 형식을 갖춘 연극 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으로 직결되었다. 이처럼 남북전쟁 직후 신규 잠재 관객 형성이라는 현상은 동시대 미국 연극계와 극단들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되었다. 그들은 고객의 다양한 기호와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혁신해야 했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가진 ‘히트 상품’을 생산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때로는 모험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어야 했다. 이제 연극은 지역의 한정된 관객을 대상으로 적당히 여흥을 제공해도 연명이 가능한 소박한 직종이 아니라, 도시 혹은 국가 전체 인구를 상대로 최

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미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또 하나의 요인은 기술 혁신이다. 특히 조명, 음향, 통신, 교통 분야의 기술 혁신은 주목할 만하다. 1875년 전기 조명이 최초 사용되기 시작된 데 이어, 1876년에는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기 발명특허를 냈고, 이듬해인 1877년에는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축음기를 발명했다(Wilmeth & Bigsby “Timeline: Post-Civil” 30-32). 1869년 대륙횡단철도(Transcontinental Railroad)가 완공되어 동서 횡단 여행의 시대를 연 데 이어, 1877년에는 미국 최초 자전거 공장이 문을 열었고, 1879년에는 증기기관 쉐던(Geroge B. Seldan)이 자동차 발명특허를 냈다. 1880년에는 북태평양 철도(Northern Pacific Railroad)가 완공되었고, 1897년에는 미국 최초 증기기관차 ‘스탠리 스티머’(Stanley Steamer)가 개발되었다(Wilmeth & Bigsby, “Timeline: Post-Civil” 35-61).

이러한 기술 혁신은 전반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직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시기 관객 대중이 이전 시대보다 세련된 취향과 안목을 가지는데 일조했다. 더욱이 앞서 잠시 언급한 대륙횡단철도의 완공과 확장은 전국을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어주었으며, 이는 그동안 미지의 세계로 여겨져 왔던 미국 서부로의 인구 유입과 정착의 포문을 여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례로, 1880년대 중반까지 13만 마일 이상의 철로가 가설되었는데, 이는 1860년 기준으로 네 배가 확장된 길이였다(Londré & Watermeier 168). 결과적으로, 서부로 가는 길목인 미국 중서부 도시들 역시 유동인구 증가의 수혜를 받아 산업·상업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잠재 고객 증가,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주거지역의 전국적 확장 등 이 시기 미국 사회가 목도한 변화들은 다름 아닌 동시대 미국 연극계가 심분 활용해야 할 사업 환경이었던 것이다.

한편, 주거지역이 전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은 당대 미국 연극계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그들의 공연 공간 혹은 사업시장의 확장을 의미했다. 아울러 언급한 대륙횡단철도 확장은 당대 미국 극단이 지역적 편협성을 벗어나 활동 반경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반 시설이었

다. 특정 지역의 극단이 유명세가 전국에 퍼지게 되면, 극단은 배우와 장비를 기차에 싣고 전국에 산재한 관심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비로소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의 전국적 확대와 대륙횡단철도라는 기간 시설의 확장의 조합은, 전국 단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상품 ‘양산’(mass-production) 체제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남북전쟁 직후 산업화 시기는 미국 연극계가 환골탈태하여 단순 흥행업 수준에서 산업이라 부를 수 있는 규모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보다 다양한 배경과 세련된 기호를 가진 고객과 잠재 수요의 증가, 공연 시장의 전국적 확산, 대륙횡단철도 등 기간 시설망의 확충 등은 미국 연극계가 명실공히 양산 체제를 갖춘 산업으로 쇄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IV. 자생적 연극 관행과 미국 연극의 정체성

1870년 이전 미국의 연극은 정주 레퍼토리 극단(resident stock company)이 지배하는 구조였다. 이들은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극단 전용 상설 극장을 소유하고 전속 배우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련의 ‘상연종목’(repertory)을 무대에 올리는 방식을 따랐다(Poggi 3). 이러한 행태는 이미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었다. 애초부터 전통의 부재로 출발한 신생국 미국은 유럽의 전통, 특히 모국인 영국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연극 문화도 예외는 아니었다.

영국 연극 관행의 미국 이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루이스 할렘 극단(Lewis Hallam's Company)의 미국 입성이었다. 런던을 본거지로 하는 이 극단은 1752년 5월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에 첫 발을 내딛었고, 그해 9월 15일 첫 공연으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을 무대에 올렸다. 루이스 할렘 극단은 미국 최초의 직업극단(professional company)으로 미국 연극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⁵⁾ 그러나 상

5) 루이스 할렘 극단이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당시 영국의 연극계 상황과 직결된다. 1737년 면허법(Licensing Act) 발효로 코벤트 가든 Covent Garden과 드루리

기한 연극사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실상 런던에 모극단(mother company)을 둔 지류극단(branch company)임을 감안할 때, 더욱이 당시가 미국이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극단을 완전한 미국 연극 전통의 시작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 관객들을 의식하여 1758년경에는 “미국 극단”(American Company)로 개명하기까지 하였지만, 루이스 할렘 극단은 엄격한 의미에서 영국 극단이었고, 이 극단이 미국에 선보인 연극 관행은 영국적 연극 전통이 미국의 풍토에 이식된 것이었다. 이들의 주력 상품은 셰익스피어의 극이었지 미국의 지방색을 묘사한 미국 극작가의 창작극이 아니었고, 이들이 선보인 캐릭터 역시 미국의 자생적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미국에 이식한 전통에는 셰익스피어 시대부터 당시까지 영국 연극 전통으로 굳어져 온 ‘상연종목’ 관행도 포함하며, 이러한 관행이 1870년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전국적인 잠재 고객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특정 지역에 정주하면서 제한된 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연극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공연 수입의 차원에서도 그렇거니와, 보다 치열해지는 연극 시장 경쟁구도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연극계는 수요량의 변화에 신속히 응대할 필요가 있었다. 즉, 각 극단은 지역성을 탈피해 그들의 연극 상품을 전국 단위의 고객에게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박했으며, 이러한 필요성이 연극 상품 양산 체제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아울러, 당시 관객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한 배경과 세련된 안목을 지닌 고객층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새로운 연극 상품을 생산하는 일은 당대 극단의 현실적 당면 과제였다. 일정 기간 같은 상품을 ‘재활용’하는 레퍼토리 체제는 이제 관객의 입맛에 부응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치열한

레인(Drury Lane) 두 극장에게만 공연 독점권이 허용되면서, 영국의 극단들은 위기에 봉착했다(Henderson 376). 공연 면허가 없는 루이스 할렘 극단은 왕실과 귀족의 후원이 끊긴 상황에서 고전하다가 1751년에 극장 문을 닫았다. 새로운 활동 무대를 모색하던 극단은 미국을 선택했던 것이다. 미국 최초 직업극단이라는 것 외에, 루이스 할렘 극단은 미국 최초 상설극장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들이 1766년 필라델피아에 세운 서덕 극장(the Southwark Theatre)은 미국 최초의 상설 극장, 1767년에 세운 존 스트리트 극장(John Street Theatre)는 뉴욕 최초의 상설극장으로 기록된다.

경쟁구도 속에서 각 극단은 관객 유치를 위해 보다 다채로운 연극 상품을 선보여야 했고, 이는 이윤창출은 물론 극단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즉, 남북전쟁 직후 미국 연극계는 관객이 극단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형국으로 재편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남북전쟁 이후 대륙횡단철도 가설과 확장을 통한 전국 대중교통망 확보는 앞서 언급한 연극 상품 양산의 필요성을 견인하고 현실화할 시기적절한 수단이었다. 사용자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의 운임 인하는 극단의 연극 양산 노력과 성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Dillard 368). 이제 극단은 특정 지역의 극장에 상주하기보다, 전속 배우들과 공연 장비를 기차에 싣고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다수의 판로를 개척하고 보다 큰 이윤창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러한 추세가 보편화되면서, 정주 레퍼토리 극단은 점차 순회 극단 형태로, 혹은 정주 극단과 순회 극단을 접목한 ‘컴비네이션 극단’(combination company) 형태로 대체되는 수순을 밟았다. 일례로, 1872년경 50여개에 달하던 정주 레퍼토리 극단 수가 1880년경에는 8개로 급감한 반면, 컴비네이션 극단은 1872년 5개에서 4년 만에 백 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1900년 무렵, 정주 극단은 완전히 퇴출되기에 이른다(Frick 201). 이는 당시 미국 연극계 환경의 급변 추세를 여실히 방증한다.

컴비네이션 극단의 출현은 공연 상품의 전국유통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극단에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직 있었는데, 순회공연 때마다 무대에서 사용될 배경막, 소도구와 소품, 의상 등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그것이다. 순회공연의 편리성을 위해 극단은 여행 짐을 줄여야 했다. 이런 이유에서, 극단은 점차 선보일 상연종목 수를 줄여가며 그에 필요한 수화물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고, 최종적으로 한 개 작품만을 특화된 순회공연을 떠나는 수순을 밟았다(Londré & Watermeier 184). 나아가 이들은 특화된 공연물을 전역에 동시 개봉함으로써 지역 관객들의 동시다발적 수요에 적극 부응할 방법을 모색했는데, 해답은 다수의 ‘여벌 극단’(duplicate companies)을 조직하고 전역에 파견하여 동일 작품을 공연케 하는 것이었다. 당대 최고의 극작가이자 연극제작자인 스틸 맥케이(Steele MacKaye, 1842-1894)의 『헤이즐 커키』(Hazel Kirke, 1879) 초연은 좋은 사례다.⁶⁾ 이 극의 1880년 뉴욕 초연

기간 중, 그는 3개의 여벌 극단을 조직해 다른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했고, 1882-83년 시즌에는 무려 15개의 여벌 극단이 뉴욕 이외 지역에 파견되어 같은 작품을 동시 공연했다(Poggi 6).

컴비네이션 극단의 출현은 결과적으로 전국 유통망을 통한 공연 상품의 ‘규격화’(standardization) 및 양산 체제의 도래를 가능케 한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여기서 ‘규격화’라 함은 기존 극단의 레퍼토리와 체제 및 그에 따라 여러 상연종목 작품이 순차적으로 공연되던 관행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특화된 단일 공연작품과 동일한 품질의 전국 동시 상연이 비로소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이 시기 관객들은 지역 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과 수준으로 ‘규격화된’ 연극을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연 상품의 규격화는 당시 미국 연극계 환경과 공연 문화에 추가적 변화를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화된 단일 작품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극단은 여러 상연종목에 분산투자 했던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상연 작품의 내실과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세련된 고객의 취향과 기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당시 미국 연극은 ‘볼거리 사실주의’(spectacular realism)라는 미국적 리얼리즘이 대세였고, 관객들은 실사처럼 정교한 무대세트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눈요깃거리를 무대에서 기대했다. 무대세트와 눈요깃거리의 규모 또한 ‘장관’이라 할 수준에 육박했다. 다수의 상연종목 제작에 들었던 비용을 한 작품에 집중시킴으로써, 극단은 상기한 관객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⁷⁾

6) 맥케이가 집필한 5막극으로, 원제는 『강철같은 의지』(*The Iron Will*)이다. 이 극은 1880년 2월 4일 워싱턴 스퀘어 극장(Washington Square Theatre)에서 공식 초연되었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 극은 주연 여배우 이피 엘슬러(Effie Ellsler)를 스타로 만들면서 1881년 5월 31일까지 486회 공연되었는데, 이는 당시까지 최장 연속공연 기록이었다(Murphy 5). 1910년대 중반까지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 제작되었고(Quinn 497), 1916년에는 영화로, 1987년에는 오페라로 제작되었다.

7) 19세기 후반 미국 볼거리 사실주의 연극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어거스틴 달리(Augustine Daly, 1838-1899)의 『가스등 아래』(*Under the Gaslight*, 1867)가 있다. 이 극은 철로에 손발이 묶인 남자 주인공이 무대 안으로 기차가 쇠도하는 가운데 간발의 차로 속박을 풀고 탈출하는 스틸 넘치는 마지막 장면으로 유명하다. 무대 안으로 쇠도하는 열차와 귀를 찢는 엔진 폭발음과 경적소리는 당시 관객에게 깜짝 놀랄 장관이었다(Wilmeth and Cullen 29). 아울러 이러한 장관을 연출하는데 전기, 음

주목할 점은 컴비네이션 극단 체제가 정착하게 되면서 극단 내 노동 구조에도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컴비네이션 극단 체제 하에서 매니저(manager)와 제작자(producer) 역할이 분화되고 이원화되었다. 정주 레퍼토리 극단 체제가 지배하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이제 극단 매니저는 더 이상 연출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직 극의 성공적인 흥행과 이윤 창출의 극대화에 전력을 다 해야 하는 경영전문가여야 했다(Poggi 4). 경영전문가로서 매니저의 첫 번째 역할은 극장을 대관하는 일이었는데, 가장 선호되는 지역은 당시 연극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던 뉴욕이었다. 기실, 남북전쟁 이전부터 뉴욕은 이전의 필라델피아를 대신해 미국 연극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세련된 공연 프로그램과 자본력으로 무장한 컴비네이션 극단들의 본부가 들어서고 남부 노동자 및 유럽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브로드웨이는 1870년대 이후 명실상부한 미국 연극의 메카가 되었다. 여기에 미국 전역을 잇는 교통망 확산에 힘입어, 뉴욕은 미국 공연물의 제일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떠맡게 된다.

경영과 제작의 역할 분화는 보다 체계화되고 강화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컴비네이션 극단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업무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극장대관과 및 순회일정 관리 및 계약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체인조직 ‘신디케이트(The Syndicate, 1896)가 등장했다. 한편으로는 연극 제작과 공연에 전념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 제작된 연극상품을 홍보하고 유통하는 일을 전담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증대된 공연수익은 극단과 신디케이트의 개별 자본 증식뿐만 아니라 미국 연극 산업 전체의 경제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부 후원의 부재에서 기인한 미국 연극의 상업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나 정부의 후원 부재는 미국 연극계가 강박적으로 갖고 있던 유럽 연극에 대한 열등감이 더 이상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는 ‘상업성’이라는 미국 연극의 토착적 전통의 기원이자 추진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향, 기계장치 등 당대 최신 기술과 장비가 활용되었는데, 이들 자체가 관객의 중요한 볼거리이기도 했다. 특히 연극제작자 데이비드 벨라스코(David Belasco, 1853-1931)는 1980-90년대 연극계에서 “음향과 기술 효과의 마법사”(a wizard with lights and technical effects)로 칭송받았다(Murphy 21).

남북전쟁 이후 미국 연극계는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뉴욕 중심의 구도 재편 속에서 컴비네이션 극단, 여벌 극단, 규격화된 공연물의 전국 양산 체제라는 자생적 연극 관행을 토착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다른 아닌 동시대 유럽 연극 환경과 차별되는 미국 연극 산업의 정체성이자, 상업적 가치라는 태생적 전통을 재확인하고 이후의 발전 가능성을 예견하는 징후이기도 했다. 훗날 미국이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 제작과 공급의 거점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연극계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자생적 제작, 생산, 유통 구조 인프라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고, 상업적 가치라는 미국 연극의 태생적 전통에서 이미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 용 문 헌

- Allitt, Patrick. *The Conservatives: Ideas and Personalities Throughout American History*. New Haven: Yale UP, 2009.
- Becker, Carl Lotu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 Study on the History of Political Ideas*. New York: Harcourt, 1922.
- Dillard, Dudley.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orth Atlantic Commun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7.
- Ellmann, Richard, and Charles Feidelson, Jr., eds. *The Modern Tradition, Backgrounds of Modern Literature*. New York: Oxford UP, 1965.
- Frick, John. "A Changing Theatre: New York and Beyond,"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Theatre, vol. II*, Ed. Don B. Wilmeth and Christopher Bigsby. Cambridge: Cambridge UP. 1988. 196-232.
- Henderson, Mary C. "Scenography, Stagecraft, and Architecture in the American Theatre: Beginnings to 1870."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Theatre, vol. I*. Ed. Don B. Wilmeth and Christopher Bigsby. Cambridge: Cambridge UP, 1998. 373-423.
- "How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Drafted." *New York Times*, July 1, 1917.
- Jasanoff, Maya. *Liberty's Exiles: American Loyalists in the Revolutionary World*. New York: Vintage, 2011.
- Londré, Felicia Hardison, and Daniel J. Watermeier. *The History of North American Theater*. New York: Continuum, 1998.
- Murphy, Brenda. *American Realism and American Drama, 1880-1940*. Cambridge: Cambridge UP, 1987.
- Poggi, Jack. *Theatre in America: the Impact of Economic Forces, 1870-1967*. New York: Cornell UP, 1968.
- Quinn, Arthur Hobson. *Representative American Plays*. New York: The Century Co., 1922.

- Shank, Theodore. *American Alternative Theatre*. London: Macmillan, 1982.
- Smith, Barbara Clark. *The Freedoms We Lost: Consent and Resistance in Revolutionary America*. New York: New Press, 2010.
- Wilmeth, Don B., and Rosemary Cullen, eds. *Plays by Augustine Daly*. Cambridge: Cambridge UP, 1984.
- Wilmeth, Don B., and Christopher Bigsby, comp. "Timeline: Beginnings to 1870."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Theatre, vol. I*. Ed. Don B. Wilmeth and Christopher Bigsby. Cambridge: Cambridge UP, 1998. 20–109.
- , comp. "Timeline: Post–Civil War to 1945."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Theatre, vol. II*. Ed. Don B. Wilmeth and Christopher Bigsby. Cambridge: Cambridge UP, 1999. 24–105.
- Wilson, Garff B. *Three Hundred Years of American Drama and Theatre: From Ye Bear and Te Cubb to Hai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3.
- Wilson, Edwin, and Alvin Goldfarb. *Living Theatre: A History*. 3rd ed. Boston: McGraw Hill, 2000.
- Woodworth, Steven E. *Cultures in Conflict: The American Civil War*. Westport: Greenwood P, 2000.

Abstract

***Mercantile Value and Industrialism:
the Post-Civil War Reconstruction and Identity of American
Theatre***

Park, Jungman

The post-Civil War period brought a birth to industrialism in America, which provided American theatre with a fertile market of potential audiences. In addi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ventions during the period led to the building of infrastructure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theatre business. Such environment motivate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theatre into enterprise seeking for mercantile value, which in turn created new forms of genuinely 'American' theatre conventions such as combination and duplicate companies. After all, all these conventions were integrated to a new phase of mass-production and nation-wide distribution of standardized performance. What is worth noting is that all these changes took place after the Civil War, and this war was a significant momentum that America realized the true sense of independence from the English tradition that had still remained since the July 4th, 1776. Accordingly, the mentioned American authentic theatre conventions suggested the theatrical dimension of independence. Without royal or governmental sponsorship, American theatre had to be mercantile-oriented from the beginning, depending on the sole box-office income for survival. In short, the mercantile value was the in born identity of American theatre. The post-Civil War industrialization and commercialism of American theatre is regarded as the rediscovery and affirmation of its natural

identity called mercantile value, foreshadowing the future course.

**Key Words : American Theatre, Mercantile Value, Industrialism, Civil War,
Mass-Production System**

미국 연극, 상업적 가치, 산업주의, 남북전쟁, 양산 체제

논문접수일: 2014.11.14

심사완료일: 2014.12.17

게재확정일: 2014.12.23

이름: 박정만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주소: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길 47

이메일: jungmany@gmail.com

